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<b>보도자료</b>	2026. 6. 24.(수) <b>배포 즉시</b> 보도 가능		
<b>농업기술원</b>		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	강병수	☎ 760-7901
		농촌자원팀장	이성돈	☎ 760-793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##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마무리...교육생 전원 만족

- 서부농업기술센터, 3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 교육 운영 -
- 교육생 전원 ‘만족 이상’ 응답...실습 및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 희망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강병수)가 운영한 ‘2026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’ 이 교육생 전원의 만족 속에 마무리됐다.
  - 교육 종료 후 수강생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, 응답자 전원이 교육에 대해 ‘만족 이상’ 이라고 답했다. 이 가운데 57.1%는 ‘매우 만족’, 42.9%는 ‘만족’ 으로 평가했다
-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기초 영농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  - 지난 3월 2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됐으며, 누적 296명이 참여했다. 교육은 서부지역 주요 작물 재배기술을 비롯해 농업정책, 농업기계 활용, 스마트농업, 귀농·귀촌 우수사례 등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.
- 설문조사에서는 신규농업인의 귀농 동기와 영농 계획, 정착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.
  - 교육생의 85.7%는 40~50대 중장년층이었으며, 귀농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는 ‘이직 및 퇴직(19명)’ 이 가장 많았다.

- 희망하는 영농 형태는 전통적인 1차 산업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.
  - 농산물 생산에 가공·체험·서비스를 결합한 6차 산업을 희망한 응답도 10명으로 나타나 신규농업인의 경영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  - 영농 진입 과정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‘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(21건)’ 과 ‘농지 확보(12건)’ 가 꼽혔다.
  - 정보 취득 경로로는 ‘농업기술센터 교육 및 방문’ 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아(23명), 농업기술센터가 신규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이 영농정착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.
- 가장 유익했던 교육 과정으로는 ‘주요 농업기계 작동의 이해’ 가 꼽혔다. 영농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농업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실습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.
  - 교육생들은 “농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초 개념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” 고 평가했으며, 향후 실습 중심 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과정 확대를 희망하는 의견도 제시했다.
- 이성돈 농촌자원팀장은 “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농업인들의 높은 열정과 현장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” 며 “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, 실습 중심 교육과 품목별 전문과정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” 고 말했다.